

12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GMAC 파산모면'안도' [다우: 8,515.55pt (+ 0.56%)]	개장 전 소매 부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GM 등 자동차 관련주가 선전하며 지수를 견인 했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날 GM의 금융 자회사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GM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이 투자심리를 완화시켰음.
GMAC "파산 면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날 GM의 금융 자회사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GMAC는 7,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GM은 GMAC 파산 부담을 덜게 되었음. GMAC는 은행지주사 전환 이후 정부 구제금융을 신청할 계획임. FRB는 GMAC이 당초 조건으로 내걸었던 300억달러 채무스왑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GM 회생을 보다 원활히 하겠다는 정치적 판단 하에 승인을 결정했음.
유가 반등 [WTI: \$37.71 (+ \$2.36)]	아랍 에미레이트(UAE) 등 산유국들의 감산 동참으로 국제유가가 나흘만에 반등했음.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3위 산유국인 UAE는 다음달 중 석유 수출을 15% 줄일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OPEC는 앞서 하루 220만배럴 감산을 결의했지만 회원국들의 실질적 감산 조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음.
日총리 지지율 `추풍낙엽`..20%대 턱걸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11월보다 10%포인트나 급락하며 21%로 떨어졌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니혼게이자이와 TV 도쿄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악화된 경제와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느장 대응에 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
일(日)·대만도 LCD·반도체 속속 감산	감산 바람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왕국인 일본에도 번져나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있음. 이런 분위기는 특히 전자업종에 뚜렷. 소니는 올해 LCD TV의 판매 대수를 1700만대에서 100만대로, 파나소닉은 이달 하순부터 약 한 달 동안 LCD 패널의 생산을 10%가량 줄일 계획.
중기업 내년 10월부터 해외 先특허출원 가능	중국 기업들이 내년 10월부터 해외에 먼저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대우조선 본계약 연장” ... 한화 자산매각 관련	대우조선해양 매각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컨소시엄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인수대금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한데 대해,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사실상 본계약 시기를 연장해주기로 함.

제목	주요 내용
소비심리 '냉골' .. 외환 위기 이후 최저	경기전망을 종합해 평가하는 소비심리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짐.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1로, 환란 직후인 98년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84에서 3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지난 9월 이후 석달 연속 내려온 것.
은행 연말 BIS비율 간신히 12%대 도달	당국이 증자와 각종 보완자본용 채권 발행을 통한 BIS 비율을 끌어올리라고 채근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 영향으로 국내 은행이 간신히 올 연말기준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12%대를 맞추게 됨.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0.86%이었으며, 12월 말까지 계획된 자본확충 계획이 모두 이행되면 BIS비율이 이보다 1.38% 포인트 올라가 12.24%가 되고 기본자본(Tier 1)비율은 8.33%에서 8.93%로 높아짐.
'다시 뜨는' CMA, 석달 만에 30조원 회복	주식시장 침체와 일부 증권사의 유동성 악화 우려로 CMA에서 이탈하던 자금은 상대적인 고금리에 수시입출금이라는 장점을 찾아 다시 모여들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석 달여만에 30조원대를 회복.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25개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CMA 잔고가 지난 19일 기준으로 30조4139억원으로 전월대비 3.45% 증가.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